35년만에 돌아온 포크 가수 박인희

“기억해 주는 팬들 덕에 용기냈어요”

‘그리운 사람끼리’ 콘서트 개최
송창식·팬들과 함께 무대 꾸며

1970년대 혼성듀엣 ‘뚜아에무아’ 출신인 1세대 여성 포크 가수 박인희(71)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통기타 반주에 맞춰 ‘그리운 사람끼리’를 부르는 그의 음색은 여전히 청아하고 창법은 단정했다. 40여 년 전 민낯에 청바지를 입고 노래하던 그는 이날 옅은 화장은 했지만 평소 입던 옷을 입은 채 수수한 차림 그대로였다.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잠깐 노래를 했고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하다가 떠났는데 많은 분이 기다려주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얘기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35년 만에 컴백 공연을 여는 박인희는 14일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낯설다”며 차분한 어조로 소감을 밝혔다.

박인희는 오는 4월 30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을 시작으로 5월 8일 일산, 15일 수원, 22일 대전 등지에서 ‘박인희 컴백 콘서트-그리운 사람끼리’를 개최한다. 하반기까지 전국투어로 진행될 이번 공연은 그가 1981년 미국으로 홀연히 떠난지 35년 만에 여는 컴백 콘서트이다. 또 그가 1970년대에도 개인 공연을 연 적이 없어 사실상 데뷔 이후 첫 단독 공연이기도 하다.

그는 “젊을 때도 자의로 그만뒀고 이 시간이 오기까지 미련이 없었다”며 “지인들과 매스컴이 미국에 찾아와 권유해도 전혀 생각이 없었다. 그의 마음을 바꾼 건 팬들이었다. 그는 10여 년 전 미국 샌타모니카에서 만난 팬이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변치않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또 그 즈음 아직도 자신의 팬카페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듣게 됐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노래를 다시 만들기 시작해 60여 편을 완성했다고 했다. 차제에 세시봉 공연기획사 측이 지난해 미국으로 찾아와 공연 제안을 한 것이 결국 컴백으로 이어졌다.

숙명여자대학교 불문과 출신인 박인희는 지금 세대에겐 잊힌 이름이지만 1969년 이필원과 국내 최초의 혼성듀엣인 ‘뚜아에무아’로 데뷔해 ‘약속’, ‘세월이 가면’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1972년 결혼 후 솔로로 전향해 1974~76년 6개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모닥불’, ‘그리운 사람끼리’, ‘끝이 없는 길’, ‘봄이 오는 길’ 등의 대표곡을 냈다. ‘방랑자’, ‘썸머와인’, ‘스카보로의 추억’ 등 번안곡을 내기도 했다. 그는 대부분의 히트곡을 직접 작사·작곡했고, 시집 2권과 수필집 등을 발표해 ‘노래하는 시인’으로 불렸다. 국내 최초로 ‘목마와 숙녀’, ‘얼굴’ 등의 시낭송 음반을 히트시키기도 했다.

이번 컴백 공연은 제목처럼 지난 35년간 ‘서로 그리워한 사람들의 만남’이란 테마로 구성된다. 쎄시봉 출신 송창식과 함께 한 무대를 꾸미고, 공연 소식에 반색한 열성적인 팬카페 회원들이 무대를 함께 만들어간다.

팬클럽 회원인 화가 나안나 씨는 박인희의 히트곡을 주제로 그린 추상화 67점을 공연 때 LED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또 공연기획사는 지난 수개월간 실용음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해 1970년대 박인희를 연상시키는 ‘박인희 키즈’를 선발했으며 이들은 박인희의 ‘젊은 날의 우리들’을 리메이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곡은 풍문여중 동기 동창인 이해인 수녀와의 우정을 소재로 35년 전에 만든 노래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팬클럽 회원을 비롯해 백순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회장, 풍문여고 교사진 등 5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배우 한효주(왼쪽부터), 천우희, 유연석이 영화 ‘해어화’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욕망과 질투 어린 캐릭터 보게 될 것”

영화 ‘해어화’ 소율 役 한효주
유연석·천우희 등과 연기 호흡

배우 한효주는 영화 ‘해어화’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저의 얼굴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한효주는 14일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된 제작보고회에서 “지금까지 절제되고 내면으로 감추는 연기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극대화하면서 표현하는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는 한효주를 비롯해 ‘해어화’를 연출한 박흥식 감독과 유연석, 천우희 등 주연 배우들이 참석했다. ‘해어화’는 1940년대 대중가요의 인기를 몰고 온 기생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효주는 기생학교인 ‘권번’의 최고 예인인 소율 역을 연기했다. 소율은 당대 최고 작곡가인 윤우(유연석)의 곡인 ‘조선의 마음’을 받기 위해 타고난 목소리를 지닌 친구 연희(천우희)와 대립각을 세운다.

한효주는 “사람이라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나”라며 “우리가 모두 갖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얼굴들, 욕망이라든지 질투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면서 부담스러웠다”고 전작과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서 한효주와 천우희는 극중 직업인 예인에 걸맞게 노래 실력을 선보인다. 각각 6곡을 실제로 불렀다고 한다.

한효주는 이를 위해 4개월간 우리나라의 전통 가곡인 정가(正歌)를 배웠다. 그는 “처음에는 정가가 어려웠는데 연습해보니 이렇게 매력적인 우리 노래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천우희는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노래인 ‘조선의 마음’의 1절 가사를 직접 지었다. 천우희는 “제가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 제가 써 보면 어떨까 감독님께 여쭤봐 작사하게 됐다”며 “연희란 인물의 삶을 보여주면서 당시 시대·사회적 분위기를 녹여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작곡가 역을 맡은 유연석은 영화에서 ‘아리랑’을 직접 연주했다. 이를 위해 다른 작품을 촬영하는 기간에 키보드를 가져가 연습하는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

유연석은 “아리랑은 윤우의 감정이 들어간 곡일 뿐 아니라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공감하는 노래다”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치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해어화’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로, 당나라 현종이 당대 최고 미녀인 양귀비를 칭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박흥식 감독은 이번 영화가 “대중가요의 태동기 때 노래가 가진 매력이 빛나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블로그 꼼지락 30 아침 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안녕 우리말	00 특별기획 〈베이비시터〉(재)	00 TV속의 TV	00 닥터 365(재) 05 세기의 라이벌 미래를 만든 천재들(재)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리얼스토리 눈 50 미래의 도전 특별대국 제5차전 〈이세돌 : 알파고〉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55 TV블로그 꼼지락
2	30 직언직설	00 특집 KBS 스페셜 〈아웃사이더 돌풍 트럼프〉 55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0 영재 발굴단(재)
3		55 튼튼생활체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재) 20 TV, 책을 보다	00 TV유치원 3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끼(재) 40 동물의 세계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고고 다이노
5	4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 인터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먹거리 X파일(재)	25 우리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 킹
9	3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특별대담 인공지능 인류를 넘나? 55 숨터	00 특별기획 〈베이비시터〉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어메이징 스토리 싸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 걸작 다큐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아내가 뿔났다 남편밥상(재)	30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건강한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학객유람기 루산〉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코코몽3
09:20 원더볼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교실 속에서 찾은 허세〉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재) 〈열대의 푸른 낙원, 태국 2부 고산족의 고향, 치앙라이〉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12:40 지식채널e
12:50 숨은 한국찾기
13:3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
14:00 로보카 폴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피터레빗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16:00 코코몽3
16:30 코코코 다코(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스테인리스 그릇 제작〉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셀람! 에티오피아〉
21:30 한국기행 〈국수 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천국의 아이들 2부 톤도의 아이들〉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3:35 시대공감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5일(음 2월 7일 丙申)

子 48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도다. 60년생 무심코 한 행위가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국세이다. 72년생 무의미했던 것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리라. 84년생 잔솔밭에서 바늘을 찾고 있는 형국이니라. 행운의 숫자 : 08, 85

丑 49년생 한 번 실수한다면 오점으로 남으리라. 61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73년생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집히는 것이 있으리라. 85년생 본격적인 국면에 진입하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20, 54

寅 50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난처해지리라. 62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법이다. 74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86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37

卯 51년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되리라. 63년생 꼭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75년생 순풍의 해류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87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알찬 결과를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0, 83

辰 40년생 근시안적인 관점은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52년생 모든 것을 차지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백번 낫다. 64년생 확실히 성취하는 시세이다. 76년생 재물과 인연이 깊다. 88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68

巳 41년생 역발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53년생 치열함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65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될 것이니라. 77년생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89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이니라. 행운의 숫자 : 84, 74

午 42년생 덕이 쌓인다면 궁극적으로 길성을 부르리라. 54년생 고생한 만큼에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66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니라. 78년생 편의에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4, 48

未 43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다. 55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도다. 67년생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79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어야 집중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9, 93

申 44년생 이타적 조처가 곧 자신을 이롭게 함이니라. 56년생 액운이 보이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8년생 쉽게 오해할 수도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는 형국이다. 80년생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04

酉 45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57년생 외형까지 관리한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69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되겠다. 81년생 구태여 낭비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행운의 숫자 : 92, 27

戌 46년생 파종은 힘들지라도 결실의 기쁨은 클 것이다. 58년생 단순한 착각은 여러 가지 망상을 부르는 법이다. 70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82년생 심기가 불편한 판도가 역력히 보이느니라. 행운의 숫자 : 28, 95

亥 47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59년생 이전투구의 양상을 띨 수 있다. 71년생 뒤돌아보는 것이 순리이니라. 83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